

# 종수 적고 번역서 의존 높은 기술과학서들

##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출판의 현실

통계로 본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서 출판 현황은 그리 밝지 않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납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과학 분야는 모두 3581종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기술과학에서도 컴퓨터 서적을 포함한 전기공학 분야(1779종)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기술과학서적의 49.6%를 차지할 정도다. 이외 기술과학 서적으로서는 의학(642종), 기계공학(315종), 가사·가정학(225종), 공업일반·토목공학(315종), 건축공학(194종), 농업·농학(116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순수과학 도서는 381종에 불과했다. 수학(72종), 화학(51종)만이 50종을 넘었을 뿐 그의 생물과학·물리학·동물학·식물학·천문학·지학·광물학 등은 극히 적은 종수가 발행되었다.

### 기술과학의 그늘에 가려진 순수과학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과학서 중 컴퓨터 관련서가 대중을 이루는 경향 이외에도 순수과학이 기술과학의 그늘에 가려지는 경향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과학서 중

#### 컴퓨터 관련서가 대중을 이루며

#### 순수과학이 기술과학의 그늘에 가려지는

#### 경향까지 보인다. 또 번역서가 차지하는

#### 비중도 큰 데다 미국과 일본에

#### 편중돼 있음도 지적된다.

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적된다. 전체 출판 종수에서 기술과학은 13.1%로 높지만, 순수과학은 1.3%를 차지할 뿐이다. 이같은 수치는 87년부터 96년까지의 10년간 도서발행 추이로 볼 때 기술과학은 증가추세, 순수과학은 감소추세로 나타난다.

발행부수에서는 순수과학이 80만9150부, 기술과학이 487만9750부였다. 사회과학이 34.9%(7411만여부), 학습참고서가 28.3%(6014만여부), 만화가 11.1%(2360만여부)를 차지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술과학은 2.3%, 순수과학은 0.4%를 차지하는

나라	순수과학	기술과학	총 발행종수
미국(94)	8785종(16.9%)		51863종
영국	8460종(8.8%)		95064종
중국	20567종(20.3%)		101381종
러시아	3753종(12.9%)		29162종
독일	4033종(5.4%)	1만833종(14.6%)	74174종
일본	4460종(7.6%)	4774종(8.2%)	58310종
한국(97)	381종(1.1%)	3581종(10.6%)	33610종
(95)	521종(1.9%)	3155종(11.5%)	27407종

\* 이 표는 1997출판정책 자료집의 각국 출판 통계를 재구성한 것임(일본은 일본 출판연감 1996). 괄호 안은 전체 발행종수와의 비. 미국은 농업·의학·과학·공학, 영국은 컴퓨터·공학·의학학을 기준으로 한 통계임.

수치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기술도서 출판현황을 단순비교해봐도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96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출판된 과학기술도서 총발행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만3116종인데 비해 일본은 5만5575종으로 2.4배나 일본이 많다.

같은 기간 총발행종수 대비 과학기술분야 발행종수의 비율은 12.9%에 그친 반면 일본은 15.9%를 차지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순수과학의 비중이 적지 않게 나타나 국제출판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본의 과학기술출판이 우리나라보다 두드러진 것은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의 비율이다. 91년부터 96년까지 일본은 그 비율이 91:100이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13:100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이 거의 같은 종수로 발간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순수과학은 밀쳐두고 기술과학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편 95년 독일은 순수과학이 4033종(5.4%), 기술과학이 1만833종(14.6%)이며, 영국은 전기 컴퓨터, 공학, 의학 등 과학기술 도서가 총8460종 발행되어 전체 출판 종수(9만5064종)의 9%에 이른다. 미국은 농업·의학·과학·공학 등의 도서가 모두 8785종(16%)이었다(미국은 94년 자료임).

발행종수와 부수의 면에서 중국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데, 95년 한해 동안 2만576종의 과학도서를 2102만부를 찍었다. 발행부수야 인구가 워낙 많아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심하다고 보더라도 과학도서 종수가 우리의 7배에 이른다는 것을 볼 때 중국이 얼마나 과학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지, 그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과학 진흥을 등한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과학기술도서의 수입도 많은 편이다. 분야별 외국도서 수입추천 현황을 볼 때 자연과학도서는 94년에 154만2623부(19.6%), 95년에 209만8749부(18.9%), 96년에 223만4482부(8.9%)가 수입되었다. 과학기술도서는 평균 40%에 육박하는(96년에는 69.6%) 여학도서 다음으로 높은 수입현황을 보이는데, 이는 과학기술도서가 전문가나 전공학생에게 주로 읽히는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수치는 또한 과학기술도서 분야의 저자, 학술출판 지원,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노후우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수입서 많고, 번역서 비중 높아

과학기술도서 중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지난해 발간된 순수과학서 381종 중 28.6%인 109종이 번역서이고, 기술과학서 3581종 중 15.6%인 562종이 번역서이다. 지난해 총발행 도서종수(2만7313종)와 번역도서종수(6129종)의 비는 22.4%인 점을 감안한다면 순수과학이 더 활발하게 외국에서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그간 순수과학을 등한시해서 아직도 대외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학기술도서의 번역계약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다. 96년 12월에 주정회씨(자유아카데미 대표)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한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연구>(중앙대 신방대학원 석사논문)에 의하면 과학기술도서의 번역계약 상대국으로는 일본과 미국으로서, 일본이 52.1%, 미국이 44.4%로 이 둘을 합한 것이 90%를 넘고 그밖의 국가와 계약이 체결된 것은 10% 미만(유럽 3.1%, 공산권과 기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수>

### 자료

## '과학의 달'에 읽는 어린이 과학책

어린이도서연구회... 학년별 총17종 선정

책 이름	글쓴이/그린이/엮은이	출판사	
초 등 1, 2학년	해시계 물시계 뱀은 왜 혀를 날름 거릴까요? 마이 사이언스 북(소리편) 살아있는 땅 선인장 호텔	정동찬/이영완 아만다 오닐 닐 아들리 엘에오노래 슈미트 브렌다 기버슨/미간 로이드	보림 다섯수레 한길사 비룡소 마루벌
초 등 3, 4학년	신기한 식물일기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우리 위의 하늘 나비 박사 석주명의 과학나라 여우야 꼬리 좀 빌려줘	크리스티나 비외르크/레나 안데르손 이상권 케이트 페티/제키 우드 석주명 엄영렬 외	미래사 창작과비평사 혜인 현암사 웅진
초 등 5, 6학년	집짓기 신나는 별자리 탐험 꽃씨 할아버지 우장춘 어린이 생태학(1·2) 파브리 곤충기(전8권)	강영환/홍성찬 이광식 정상목 최형선 오쿠모토 다이사부로	보림 고려원미디어 창작과비평사 현암사 고려원미디어
전학년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 21세기 백과 사전(1·2)	전의식/권혁도 외 돌링 킨더슬리	보리 신구미디어